

투데이 칼럼

사람을 사람답게... 담장 너머 사랑을 심은 교정위원, 故 유양자 선생님을 기리며

사람을 올바르게 교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규율을 가르치거나 죄를 뒤우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믿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그 믿음이 따뜻한 손길로 전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 믿음과 사랑을 평생에 걸쳐 온몸으로 실천해 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故 유양자 선생님!
지난 19일, 선생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교도관으로서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선생님의 삶을 지켜본 저는, 선생님께서 보여주시 위대한 사랑의 행적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유양자 선생님은 신실하신 천주교 신자로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한평생 활동하시며, 수용자 돕기와 출소자 자활 지원을 천직으로 여기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삼풍화학이라는 작은 세제공장을 직접 운영하셨습니다. 음식점과 소규모 사업장에 세제를 공급하며 얻은 소박한 수익을 모두 수용자들을 위해 내놓으셨습니다. 장기 수용자들의 영치금 지원부터 상담활동에 이르기까지, 선생님의 모든 수입은 고스란히 그들을 위한 밑천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은 흔히 반호로 불립니다. 하지만 유양자 선생님은 자매상담실에서 그들과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



이 만 호

전주교도소 전 교도관 · 본보 정치부장

며,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셨습니다.

때로는 자매 같은 상담자로, 때로는 어머니 같은 위로자로 항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특히 가족과의 연락이 끊어진 장기수들에게는 정기적으로 영치금을 지원하고, 편지를 통해 지속적인 마음의 교류를 이어가셨습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신 간식 하나에도 수용자들은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진심 앞에서 그들은 서서히 자신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교도소 안팎에서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과거에 대한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했던 수용자들이 유양자 선생님과 상담 후 눈물을 흘리며 "저도 이제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의 진심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법도 제도도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유양자 선생님만이 가지신 진정한 사랑

의 힘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은 출소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새벽에 교도소 앞으로 마중을 나가 출소자들을 당신의 공간으로 데려오셨습니다. 목욕탕에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사 입히며, 임시 거처와 일자리카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결혼까지 주선해 주신 일입니다. 100여 명이 넘는 출소자들이 선생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정을 꾸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당당한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사회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아라서 갈 곳이 없는 출소자들이 자녀와 부인까지 데리고 명절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와 "어머니 덕분에 잘 살고 있습니다"라고 인사드리는 이들을 보며, 정작 선생님의 천팔과 손자들은 늘 뒷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유양자 선생님은 말없이 묵묵히, 그러나 누구보다 성실하

게 용자 교정교화와 출소자들의 자활활동에 헌신하셨습니다. 교도소라는 공간이 단순한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과 희망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몸소 증명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이 땅에 남기신 가장 큰 유산은 제도나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다시 일어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절망의 나라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며,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승화시킨 수많은 사람들의 새로운 인생이 바로 선생님이 세상에 남기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고단한 삶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부디 천국에서 편히 쉬십시오.

선생님께서 돌보셨던 수많은 이들이 오늘도 당신을 기억하며 올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비롯한 교정 업무에 종사했던 교도관과 수용자들 모든 이들도 선생님께서 보여주시신 헌신적인 삶에 무한한 존경의 마음을 품고 그 길을 따라 쉬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의 고귀한 사랑의 발자국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수용자와 출소자를 위해 진심을 다하신 선생님의 희생과 봉사의 삶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천국에서 편히 쉬시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설

김제 개미마을 주민들

전북 김제시 성덕면 개미마을 주민들이 50여년 만에 자신들이 일군 땅의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들은 1970년대 화전 정리 사업으로 보금자리를 뺏기고 강제로 이주당했다.

김제시는 그동안 공유재산으로 돼 있던 주택 용지와 농경지를 주민에게 매각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매각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른 것이다.

모두 17명의 주민이 주택 터와 농경지 약 1만8000㎡의 소유권을 확보했다. 개미마을은 1976년 화전 정리 사업으로 금산면 금동마을에서 이주한 주민들이 공동묘지 부지를 개간해 만든 마을이다.

주민들은 당시 적절한 보상 없이 공동묘지로 강제 이주당했다. 이들은 보상 없이 땅을 일구고 주택을 지었지만 공유지라는 이유로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왔다.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온 이들 대부분은 70~80대 2세대로, 1세대 생존자는 단 2명뿐이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주택과 농경지를 감정 평가 기준으로 매각하되, 주민들이 대지와 농지로 개당 한 점을 반영해 개당비의 30%를 감액한 금액으로 매각하라고 조정했다.

김제시는 권익위 조정으로 지난 2월 주민 대표와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면 조정을 체결했다. 김제시는 마을 진입로 확장과 농로 포장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도 병행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숙원인 경로당 건립과 화장터 기념관 설치 등은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오랜 세월 역을함을 견뎌온 주민들의 고통에 깊은 위로를 전한다. 남은 민원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가정연합 청년 세계평화 기원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은 학교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전 세계 가정연합 청년 수천 명의 학생들이 7~8월 두 달 동안 천정궁이 있는 가평 설악면 소재 효정천원에서 다양한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갈등 등 위기의 시대에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다.

이미 진행되고 있는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은 전 세계 청년 800여 명이 참가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러시아, 브라질, 우루과이, 필리핀, 대만, 콜롬비아, 호주, 태국 등 13개국 이상의 청년 학생들이 참석하고 있다.

프로그램으로는 참부모론과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 교육, 성지순례, 영어 훈독 및 글로벌 리더 양성교육 등 세계평화를 위한 국제적 연대를 기반으로

로 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2030세대 청년 중심으로 약 1500명이 참석하는 'Holy Mother Han 특별정성수련'은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미국, 아프리카, 유럽, 중남미, 아시아태평양 등에서 함께 한다.

가평군 생태지원과 결합해 탈기후 위기를 위한 환경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청년문화와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는 취지로 '2025 퓨어유터 페스티벌 -The Pure Youth Universe'도 열린다.

가정연합은 1964년에 한국에서 창립되어 창시자 문성명·한학자 총재의 가르침에 따라 '하늘부모님 아래 인류 한 가족' 이상을 실현하고자 다방면의 활동을 펼쳐왔다. 1950년대 후반 일본과 미국을 시작으로 1970년대 공산권에까지 선교사를 파견해 현재 세계 200여 개에 선교국을 두고 있으며 올해로 창립 71주년을 맞았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자수첩

‘관광 군산’ 슬로건이 무색, 손놓은 행정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나서는길가 제일먼저 반겨 주는 것이 도로면 정체를 모르는 어마한 어망을 제일먼저 마주 하게 된다.

무질서 하게 마구 펼쳐진 어망의 모습은 가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

정체 모르는 불법으로 방치 놓은 어망들은 군산관광에 불행사나옴으로 다가오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어떠한 해법도 제시하지 못하는 군산시청 등은 서로 관계기관의 관할 회피로 이대로 방치하고 있어야만 되는것인지 되물



김 만 호

본보 군산취재본부장

지 않을수 없다. 어망이 방치 되어 있는 시설물은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도로면 가드레일이며, 어망의 특성

상 바닷물에 접촉이 되어 있었던 불품이다.

이로 인하여 바닷물의 염기로 시설물의 부식을 막을수 없을 것이 뻔한데도 이를 방관하는 관할청들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할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가시설물을 이대로 방치 할것인지 묻지 않을수 없으며 이와 같은 행태는 국도 변의 가드레일에 국한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과 부족한 기반한 군산시의 재정으로 만들어진 해안가 모든 시설에도 이와

같은 행태로 인해 부식돼 망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며 현재로 만들어진 어망 관리부지와 시설은 활용되고 있는지, 이에 관할관청에서 제대로된 관리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

관할관청의 관리 의식과 주민들의 시민의식마저 실종되고 있는 현실이 군산이라는 브랜드의 차원에서 얼마만큼의 부정적 이미지로 각인될지 걱정스럽기만 하기에 이를 빠른 시일에 해소해 아름다운 군산의 모습을 되찾아 가길 바란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